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16시 01분

2021년 신년사

2020.12.31 조희수 1153 등록자 조병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맑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뭉쳐서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계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新安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향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겠습니다.

세계 수산물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물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트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도립대학이 수석교수를 임명하고, 수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가공·유통 센터를 조성하는 등 관광·수산물 분야

고아노는 해인네그 Z자문 건장을 바꾸리하고, 뉴필산은 즉세세업장을 개강에 익나는 들길거리를 세충아졌습니나.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표'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연구개발(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표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선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30년 동안 열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속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묵실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아침

목포시장 김종식

첨부파일	 목포시 2021년 신년사.hwp (698 hit / 258.0 KB) ↓ 미리보기
전체(Zip)다운로드	

목록

MokPo - Si
Web Contents

